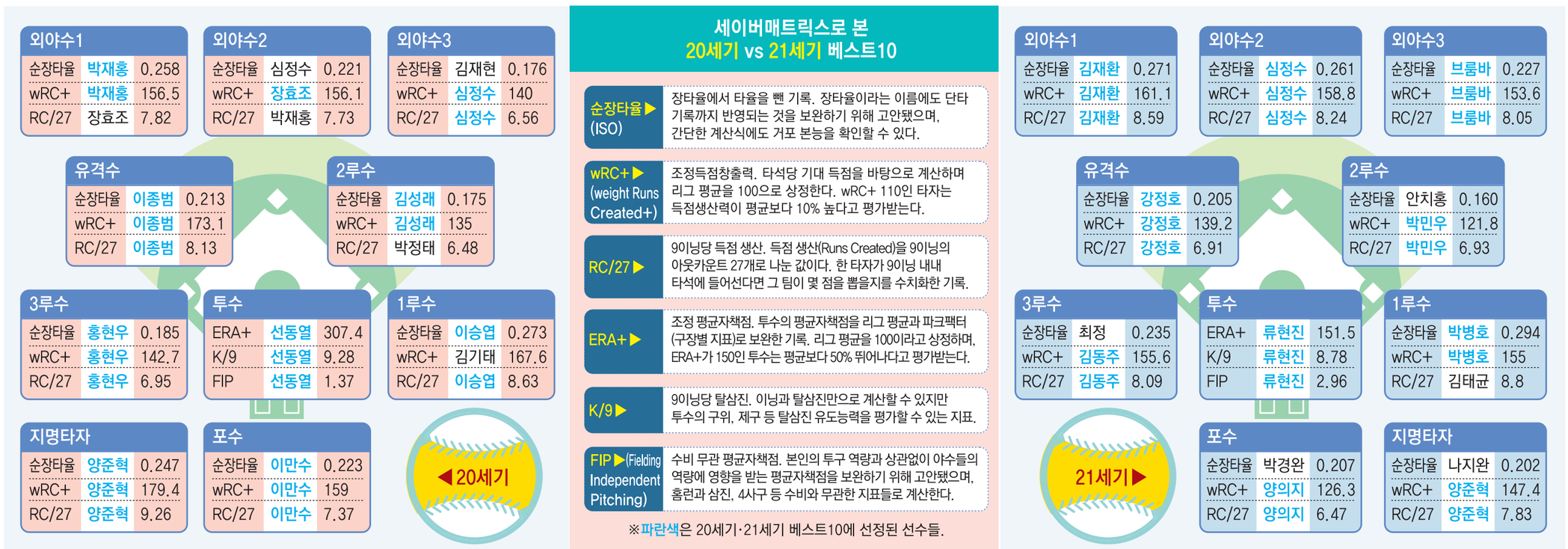
송년 기획 | KBO리그 37년, 통계로 본 20·21세기 포지션별 베스트 10



20세기 이만수 '공포' 특급…21세기 박병호 '괴력' 넘버원

〈공격형 포수〉 〈1루수 최고 힘짱〉

한국프로야구 37년을 수놓은 최강의 라인업을 '오직 숫자로만' 짠다면?

KBO리그가 역사를 쌓아온 시간만큼 수많은 별들이 뜨고 졌다. 20세기 태동한 프로야구는 21세기를 걸치며 다양한 스토리를 쌓아왔다. 한 세기를 풍미한 별들을 꼽아본다면 그 면면은 충분히 화려하다.

스포츠동아는 KBO리그 기록을 다루는 통계사이트 '스탯티즈'의 도움을 받아 무형의 가치를 배제하고, 세이버매트릭스(sabermetrics·기존 야구 기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야구를 연구하는 이론)로만 20세기와 21세기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선정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실버슬러거'와 유사하게 타격 지표만을 평가했다. 타자는 세기별로 2000타석, 투수는 1000이닝 이상 소화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만수 양의지 이승엽 박병호

이만수 3가지 지표서 모두 포수 1인자
이승엽 5년 기록만으로 20C 1루 평정
유격수는 이종범·강정호 시대로 양분
지명타자 양준혁 RC/27(9.26) 독보적

●이승엽·박병호, 이종범·강정호…별들의 전쟁

타자는 세이버매트릭스를 다루는 이들이 야수를 평가할 때 주목하는 wRC+(조정득점생산), RC/27(경기당 득점생산력), 순장타율 등 세 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20세기 포수 1인자는 이만수다. KBO리그 최초 타격 3관왕의 주인공이자 역대 최고의 공격형 포수로 꼽히는 그는 압도적이었다. 포수를 넘어 전 포지션으로 범위를 넓혀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빼어난 타격 지표를 남겼다. 21세기는 양의지가 wRC+와 RC/27 1위에 올랐다. 순장타율 1위 박경완은 전성기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있어 다소 불리했다.

쟁쟁한 타자들이 즐비한 1루는 이승엽 전후로 나뉜다. 1995년 삼성에서 데뷔한 이승엽은 단 5년의 기록만으로 20세기 1루를 평정했다. 이승엽이 일본프로야구로 떠난 사이 춘추전국이었던 1루는 2012년부터 황제로 군림한 박병호의 차지가 됐다. 박병호는 2000타석 이상 소화한 모든 타자 가운데 순장타율 1위(0.294)에 올랐다.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기록인 순장타율이 3할에 육박한다는 것만으로도 박병호의 괴력을 알 수 있다.

2루의 과거와 현재는 김성래와 박민우였다. 통산 성적으로 따졌을 때 악바리 근성으로 똘똘 뭉친 박정태와 정근우가 예상 외로 저평가 받았다. 20세기는 김성래가 독보적이었고, 21세기는 박민우와 안치홍이 치열히 경합 중이다. 여전히 젊은 안치홍과 박민우가 앞으로 써나갈 선의의 경쟁 구도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3루는 홍현우와 김동주가 자웅을 겨룬다. 홍현우는 선수 생활 말미, 팀을 옮겨 다니면서 긴 슬럼프에 빠졌다. 그럼에도 한대화, 김한수 등을 제치고 20세기 최고 3루수의 성적은 거둔 것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한국 최고 3루수' 김동주의 천하였다.

유격수는 뚜렷하게 양분됐다. 20세기는 이종범, 21세기는 강정호가 평정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는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포지션을 넘어 세기별 최고 타자를 꼽아도 이들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명타자의 길은 양준혁에게 통한다

좌·중·우 구분없이 선정한 외야수 명단에는 타격 장인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박재홍과 고(故) 장효조, 심정수가 20세기 명단을 나눠가졌다. '헤라클레스' 심정수는 21세기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포지션별 최정상을 차지한 것은 심정수와 양준혁(지명타자)뿐이다.

21세기 외야수 부문에는 김재환과 클리프 브룸바가 심정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재환은 역대 외야수 가운데 순장타율, wRC+, RC/27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명타자의 길은 시대의 구분 없이 양준혁으로 통했다. 양준혁이 20세기에 기록한 wRC+(179.4), RC/27(9.26) 모두 KBO리그 역대 1위다. 1번부터 9번타순까지 양준혁으로 채우면 매 경기 9.26점을 몰아친다는 의미다. 어느 기록을 들이밀어도 양준혁을 넘어서는 타자는 없었다. 지명타자 1위는 당연한 결과다.

투수는 팀 성적을 좌우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어떤 지표를 적용해도 정답이 분명했다. 20세기는 선동열, 21세기는 류현진의 천하였다. 선동열과 류현진간의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시대 내에서의 분류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정민철, 김용수 등 역사에 남을 이름들도 선동열과 류현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최동원·선동열 ML 못간 게 너무 아쉽다

20C 최고들…허구연 해설위원의 회상

리틀쿠바 박재홍도 최고타자 중 한명
KBO역사상 김동주 만한 3루수 없어

허구연(67) MBC 해설위원은 KBO리그의 산증인이다. 프로 원년인 1982년부터 중계 마이크를 잡았다. 비록 1986년부터 5년간 감독과 코치, 연수 과정을 거치며 잠시 화면에서 멀어졌지만 1991년부터 28년간 꾸준히 현장을 누비는 중이다. 자연히 2008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야구에 유입된 팬들에게 익숙지 않은 20세기 전설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스포츠동아가 세이버매트릭스를 참고로 선정한 '20세기 베스트10'의 명단을 허 위원에게 전달한 뒤 그들에 대한 해설을 부탁했다. 허 위원은 "대체적으로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가 기억하는 20세기 최고의 투수는 선동열이다. "선동열과 고(故) 최동원이 한국야구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한다. 다만 프로야구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선동열이 더 낫다. 최동원은 프로 출범 전부터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선동열의 '저공비행' 투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땅에 깔려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야말로 완벽했다. 20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발전된 지금도 그런 투수는 없다."

그들의 독보적인 기량만큼 아쉬운 것이 해외진출 무산이다. 허 위원은 "LA 다저스를 비롯한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동열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최동원도 미국행 직전에 무산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들이 미국에 진출했다면 박찬호 이전에 '코리안 특급' 전설을 썼을 것이다. 만일 선동열과 최동원의 해외 진출이 현실화됐다면 한국야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허 위원은 포수(이만수)와 1루수(이승엽), 유격수(이종범), 지명타자(양준혁) 포지션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들이 아니면 뽑을 이가 없다는 확신이다. 21세기 최고의 공격형 포수로 일컬어지는 강민호·양의지도 해내지 못한 타격 3관왕을 해낸 이만수의 가치를 높게 쳤다. 이승엽과 이종범, 양준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코멘트를 아꼈다.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최고의 타자들이다.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들이다"라고 허 위원은 찬사를 보냈다.

오히려 허 위원이 주목한 건 이들의 기량 너머의 영역이다. 이만수와 이승엽, 이종범, 양준혁은 단순히 기량을 넘어, 프로야구의 국민적 인기를 견인한 공신이다. '헐크 세리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만수의 오버액션, 이승엽의 홈런 신드롬이 만든 잠자리채 열풍, 이종범의 범국민적 인기가 만든 가수 데뷔까지…. 이들의 발자취는 한 시대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허 위원은 "20세기 야구 붐은 이들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지금 후배들이 고마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허구연 위원은 박재홍~장효조~심정수가 외야수 명단을 장식한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도 '통산 타율 1위' 장효조에 대한 추억을 꺼낼 때는 몇 차례나 감탄을 했다. 허 위원의 기억 속 장효조는 '우리나라에서 타격은 내가 1인자'라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선수다. 장효조는 또 타석에서 이를 증명해냈다. 허 위원은 "넘쳤던 자신감이 허세로 비춰지지 않은 것은 그가 만들어내는 결과 때문"이었다고 했다.

20세기 외야수 최고의 별로 떠오른 '리틀쿠바' 박재홍을 두고는 "저평가된 선수"라며 아쉬워했다. 그 정도에 머물 선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박재홍의 데뷔 시즌 30홈런 기록은 아직 어떤 신인도 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강백호도 그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30홈런-30도루 클럽 세 차례 가입 역시 박재홍만이 남긴 대기록이다. 허 위원은 "공수주 모두 완벽했던 선수다. 외야수는 물론 포지션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최고 타자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다.

다만 허 위원의 기억과 기록이 엇갈리는 포지션도 있었다. 3루수로 선정된 홍현우를 두고 "선수생활 말년이 아쉬웠지만 훌륭한 3루수였다. 하지만 김동주나 한대화의 이름이 없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는 의견을 냈다. 비록 21세기 올스타에 김동주의 이름이 있지만 "20세기에도 최고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 KBO리그 역사상 김동주만한 3루수는 없었다"는 게 허 위원의 설명이다.

최익래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